

# 2009 지속가능경영 설문 조사 결과 보고서



## 인사말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손상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입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경제 성장 주도의 발전으로 인한 전 지구적 공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지속가능성장'의 개념을 도입하고, 같은 해 26개 기업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약 10년 정도 늦게 지속가능성 성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21세기 최대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구는 정부 차원의 촉구와 일부 선도적인 기업의 노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의 수는 연평균 85% 이상씩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이 공기업을 포함하여 8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양적 증가와는 달리,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매출 순위 100대 기업 중 현재까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35개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동안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발간을 중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의 낮은 참여율과 보고서 발간 중단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효과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 선진기업의 사례와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기업의 재무 성과 우수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위기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미래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처음부터 지속가능경영을 올바르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취급범위가 광범위해 관련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일 PwC Advisory와 솔라빌리티는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2009년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내기업들의 지속가능성 현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통해 현 지속가능경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상호 발전적인 지속가능경영체제로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삼일 PwC Advisory 대표이사 윤재봉

솔라빌리티 대표이사 Andy Gebhardt

*Jae Bong Yoon*





---

<b>1</b>	<b><u>도입</u></b>	<b><u>1</u></b>
1.1	서문	1
1.2	요약	2
1.3	배경	3
<b>2</b>	<b><u>KOREA CSR SURVEY 2009</u></b>	<b><u>7</u></b>
2.1	설문 개요 및 응답자 현황	7
2.2	현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	8
2.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주체	9
2.4	기업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	10
2.5	기업 경영 활동	11
2.6	지속가능성 & 수익성	12
2.7	경제위기와 지속가능경영	13
2.8	고령화 사회 대응	15
2.9	국내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16
2.10	결론	17
<b>3</b>	<b><u>SolAbility ESG RESEARCH EVIDENCE</u></b>	<b><u>18</u></b>
3.1	배경	18
3.2	한국 지속가능성 우수 기업 성과	19
3.3	2007-2009년 국내기업 지속가 발전 성과	21
3.4	지속가능성 이슈의 부분적 발전 - 경제부문	22
3.5	지속가능성 이슈의 부분적 발전 - 환경 부문	23
3.6	지속가능성 이슈의 부분적 발전 - 사회부문	24
3.7	업종별 지속가능성 성과 분석	25



---

# 1 도입

## 1.1 서문

오늘날의 경제 및 사회는 최근 몇 십 년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인터넷은 산업 구조와 기업의 가치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기업과 고객, 임직원 및 협력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상호 연결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상품 및 기업 경영에 관한 방대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에 손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내용을 시시각각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 뿐 아니라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인구 고령화 등의 외부 요인들도 기업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기업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착한 기업” 혹은 “사회적 책임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기업”들이 재무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는 점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과거 재무적인 성과에만 집중했던 인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경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자사의 브랜드 및 기업 명성과 제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가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발전된 사회 기반시설에 깊은 인상을 받곤 한다. 2009년 가을,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계 수준의 기술력에 힘입어 매우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적극적인 해외 시장 확대와 입지 확충,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유럽 기업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는 큰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이는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기업들의 현 지속가능성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 지속가능성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2 요약

최근 몇 년 사이에 외부에서 평가하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이 가치있는 기업 경영의 개념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업종과 부서, 직급에서 총 187명이 응답하였음.
- 55%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 기업에서 중간 혹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가능활동을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지속가능경영이 “사회적 책임” 활동 (즉 윤리경영 혹은 사회공헌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 관리는 비교적 낮은 수준임. 그러나 새로운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및 탄소 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음.
- 과거 지속가능성을 이행하는 주요 요인은 지속가능성 이슈 보다는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 및 기업 명성 유지 등이었으나, 지난 2년 사이 이러한 경향에 큰 변화가 있었음.
- 응답자의 65%는 글로벌 금융 & 경제 위기 이후 기업 경영활동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응답자의 97.8%는 2014년에는 각 기업이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을 시행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1.3 배경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결과는 기업 재무제표를 비롯, 소위 “비재무적” 이슈들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한국에서의 이와 같은 기업 환경 변화는 무엇보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재무 보고인 환경보고서 혹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간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비재무 자료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업계의 보고서 발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기업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면 동종 업계 타 기업 역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나가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같은 보고서 발간의 양적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성의 기업 가치 및 재무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에 기반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체제 도입과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지 오래 되지 않아 실제로 관련 정책 및 경영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가 지속가능경영 정책 및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의 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본 설문조사는 국내 기업들의 실제 지속가능경영 이행 수준을 진단해 보고 기업 실무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란 1989년 브루틀란드 회의에서 정의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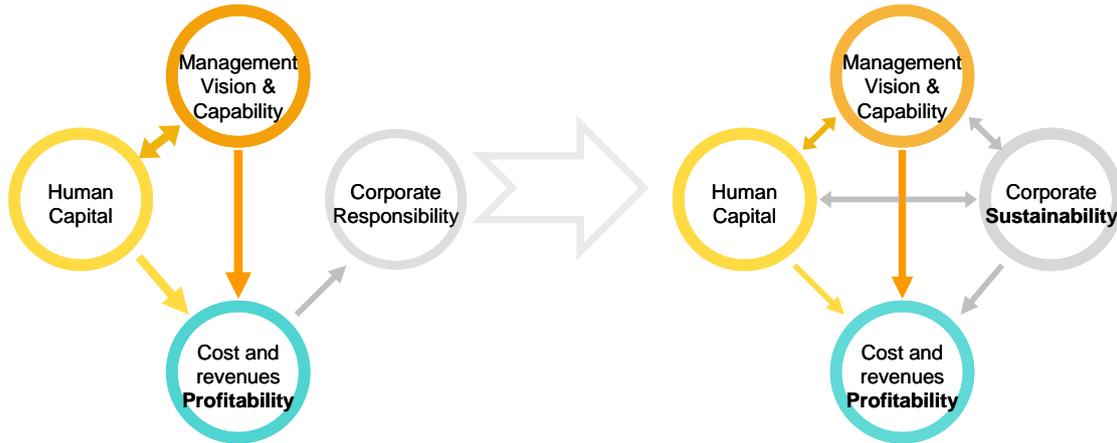
그러나, 기업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는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합의된 일반 개념은 아직 정의된 바 없으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 ‘triple bottom-line’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용어 역시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면서 개념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발전 단계와 ‘기업 경영활동이라는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70s	1980s	1990s	2000s	미래
	제한된 성장	체르노빌 사태	책임 추구	리스크 최소화	지속가능한 기회
세계 변화 요인	오일 쇼크, 산성비, 인구증가에 대한 두려움	산업 재해 (체르노빌, 보팔 사태) 및 오존홀 확인	WWW의 등장, 주주 가치 경제, 기후변화 현상 첫 보고	WWW의 보편화, 세계화, 기후변화 의식 공유, 거품 경제	에너지 희소성, 고령화 사회, 기후변화협약?
기업 반응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시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 영역 확장	사회공헌활동 및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 명성 관리	리스크 최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내부 효율성 증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요인을 포착
주요 경영 이슈	규제 대응	환경 리스크 최소화	환경 경영,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리스크 최소화, 효율성 증대, GHG 배출량	새로운 기회 포착, 지속가능경영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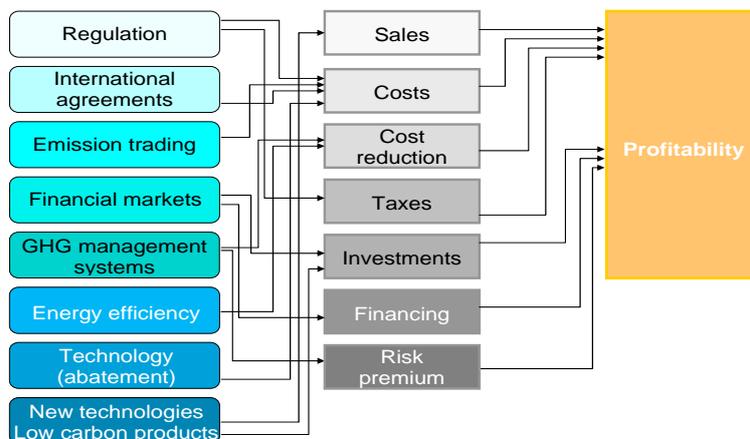
기업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영 시스템의 완전히 새로운 혁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경영 활동에 대한 진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기업 경영의 진보와 함께 점차 더 많은 이슈가 경영 활동에 포함되었고,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이슈는 새로운 정책 및 경영 시스템에 반영되어 갔다. 그러나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적인 의미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이슈들이 하나의 시스템 아래 “전반적인” 경영 활동 및 의사결정 체계에 반영되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나아가 경영 의식에 녹아들어가는 것이다.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경영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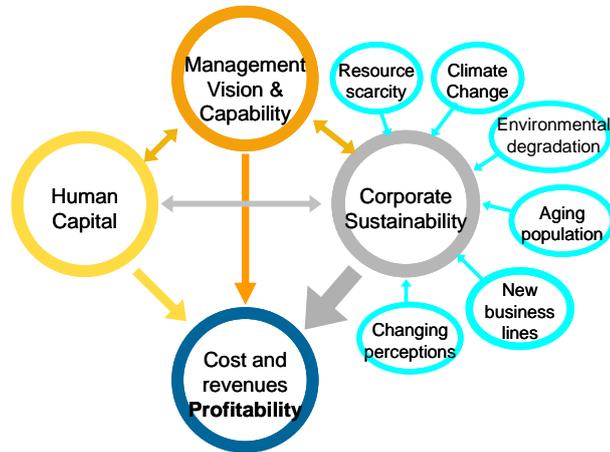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 활동 역시 점차 발전되어 왔다. 사회공헌활동에만 초점을 맞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성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경영이 전반적인 기업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몇몇 대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지곤 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요 경영활동은 매우 현실적이고도 명확한 bottom-line에서 이루어진다. 이른바 “비재무적” 이슈들은 분명히 재무성과(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바, 조금 더 구체적인 상관관계 및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몇몇 이슈들은 다른 이슈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각 기업의 사업 영역과 운영 현황 및 조직별로 상이한 영향력을 가진다. 재무 성과와 지속가능성 이슈와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은 차트로 정리될 수 있으며 아래 차트는 기후변화 이슈를 예시로 작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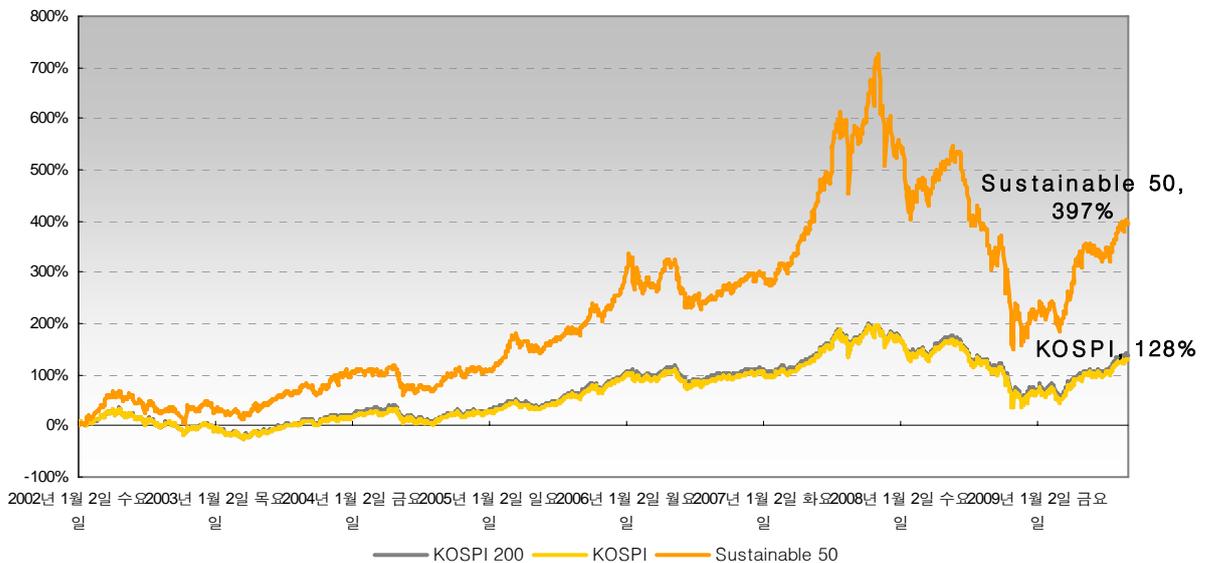
기업 환경에서의 지속가능성 메가 트렌드와 도전 과제들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 지속가능성과 재무성과와의 연계성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인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목표는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전략적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며, 내부 경영 효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지속가능경영의 재무적 가치는 솔라빌리티가 국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ESG 리서치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기업이 장기적으로 국내 상장사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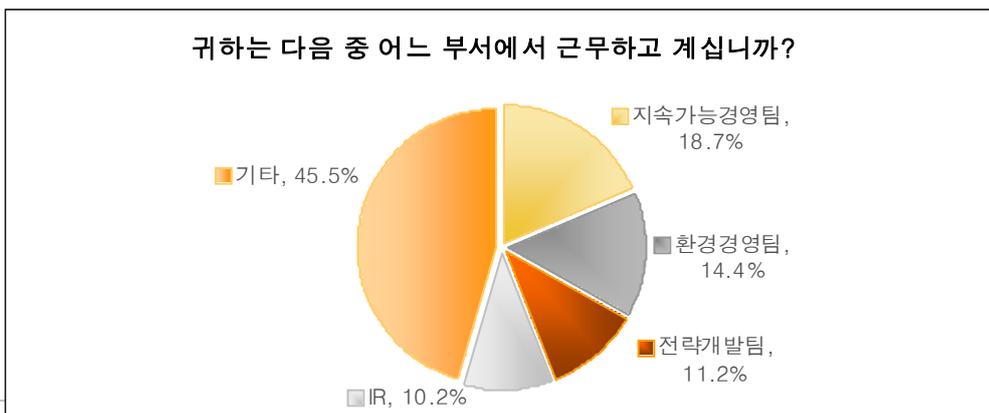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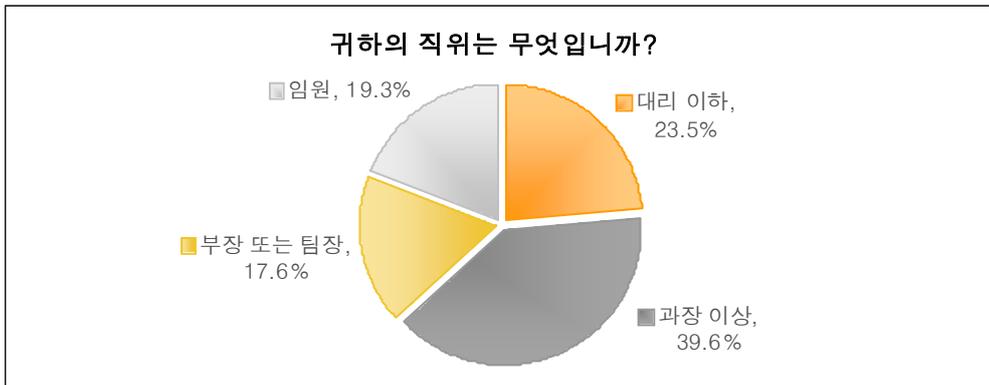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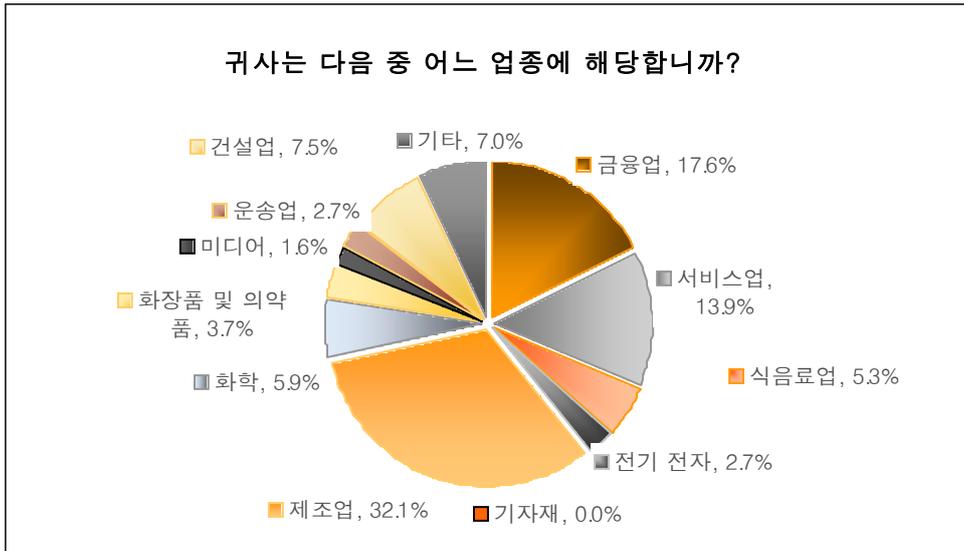
Korea Sustainable 50 performance, 2002-2009



## 2 Korea Sustainability Survey 2009

### 2.1 설문 개요 및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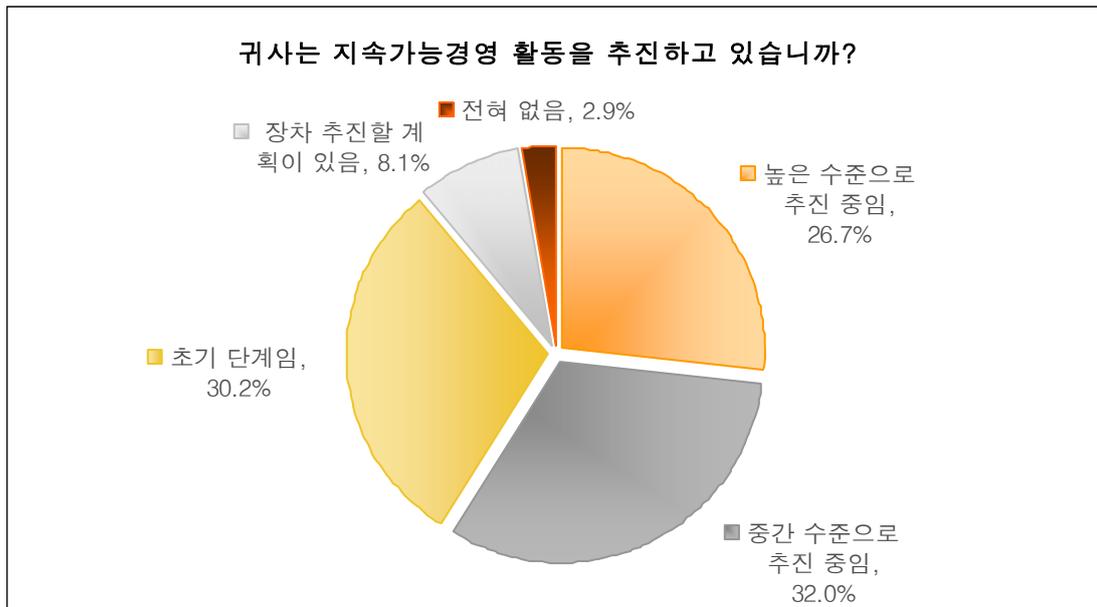
2009년 6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삼일PwC Advisory와 솔라빌리티가 공동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60개 이상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와 전화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187명이 본 설문에 응답하였다.



## 2.2 현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한국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속가능경영” 개념이 다소 늦게 도입되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신흥개발국”으로 그리고 다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약 40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97년과 9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기업 경영활동이 지속적이고도 급속도로 현대화되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지난 몇 년 사이에 놀랄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 실무진들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50% 이상의 국내 기업들이 중간 혹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55% 이상의 국내 기업에서 중간 혹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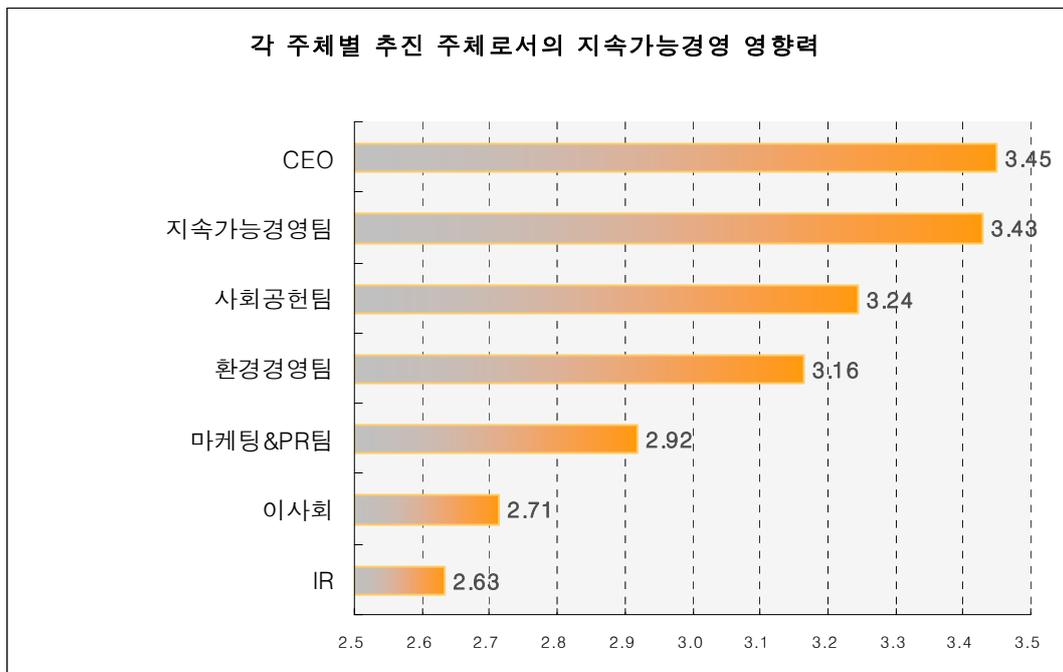
### 2.3 기업 지속가능경영 추진 주체

기업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서치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 추진에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 경영진이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국내 기업들에도 반영되면서 CEO 및 최고 경영진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추진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사회는 중요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반면, 이사회는 실질적인 경영 참여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전형적인 한국 기업 지배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고 경영진 다음으로는 지속가능경영 담당부서(전략기획부 산하)가 지속가능경영 추진의 중요한 동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사회공헌팀 및 환경경영팀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 기업’, ‘지속가능 기업’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거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재분배’와 기업 기부 문화가 오래 전부터 기업들에게 중요했던 만큼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동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사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각 주체별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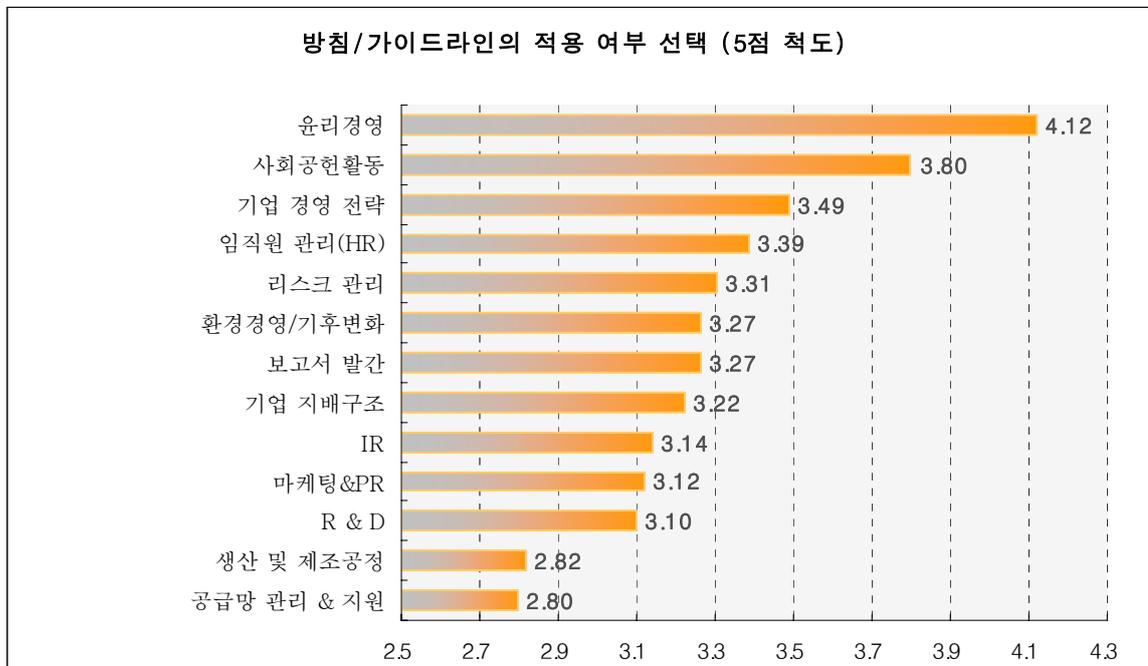
## 2.4 기업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

기업들의 실제 지속가능경영 수준 및 추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이행 수준을 질문하였으며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추진 내용이 주로 사회 및 윤리경영에 집중되어 있음.
-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공급망 관리는 국내기업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구축 및 환경관리는 상대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지속가능성 이슈가 실제 제품 생산 및 제조 과정에 반영되는 정도는 미미함.

*“사회적 책임” 활동에 집중되었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전반적인 기업 경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다음 중 귀사가 지속가능경영 방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방침/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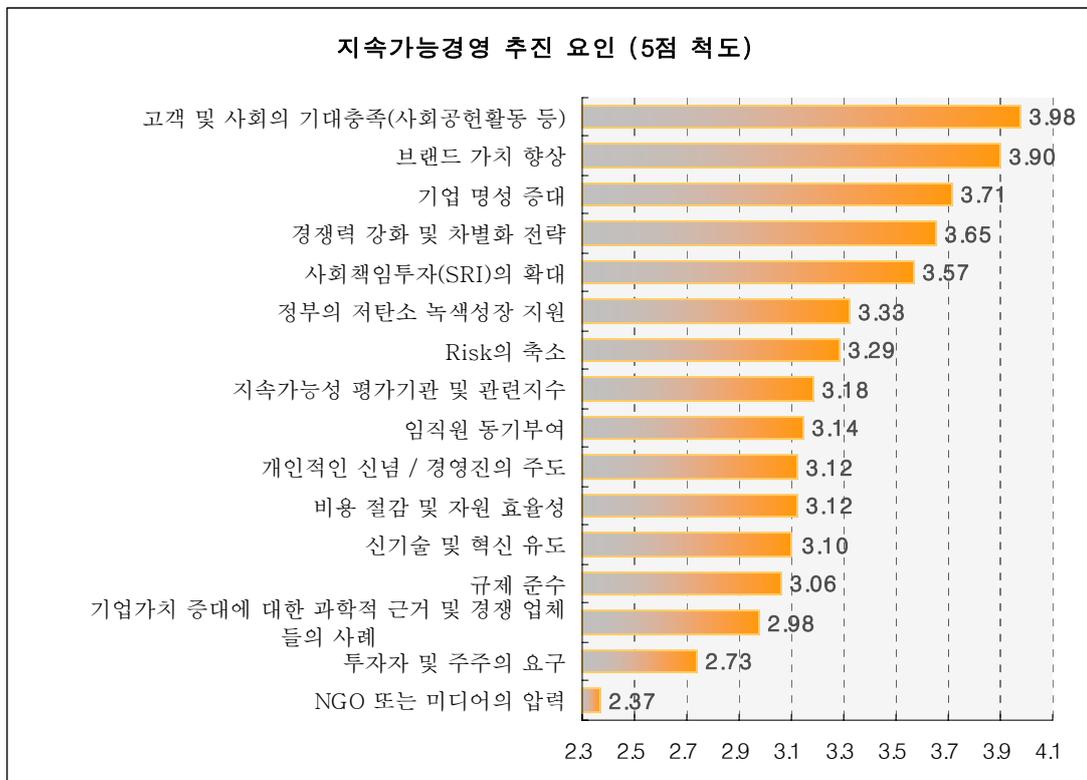


## 2.5 기업 경영 활동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는 기업이 재무적 영역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는 경험적인 증거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과 기업 가치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이해관계를 동인으로 지속가능성 전략 및 정책, 경영 시스템을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가 “기업 지속가능성”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문을 통해 기업 명성 제고와 소비자 신뢰 향상, 브랜드 가치 등이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리스크 최소화, 잠재적 비용 절감 및 제품/서비스의 전략적 개발과 같은 부분은 비교적 저평가되고 있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1990년대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는 NGO 및 언론 단체가 나이키의 Sweat-shop(노동착취공장) 등의 사태를 비난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지속가능성 의제를 대중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NGO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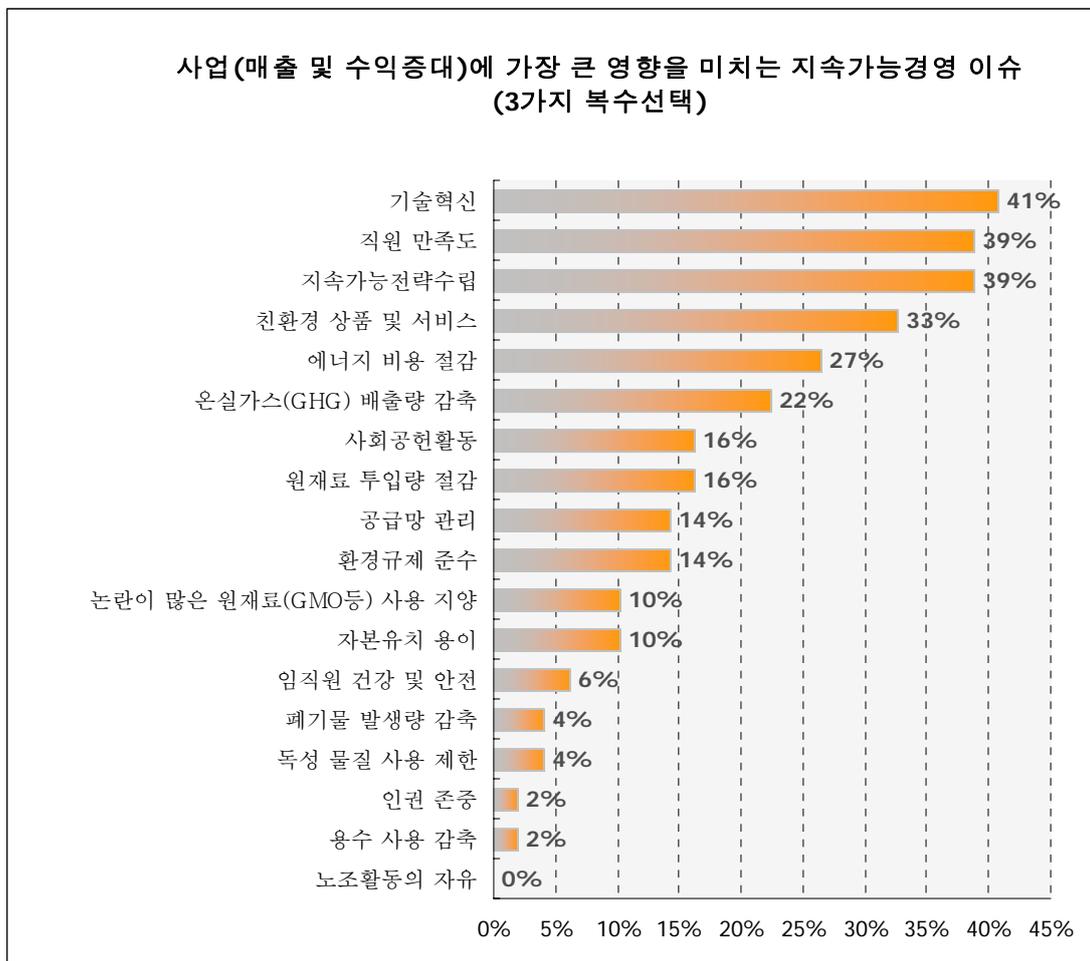
“다음의 이슈 중 귀사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게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 2.6 지속가능성 & 수익성

지금까지의 설문들을 통해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사회공헌과 같은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질적인 성과, 곧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매출 증대와 새로운 수입원 창출 등의 재무지표와의 연계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중 귀사의 사업성공(매출 및 수익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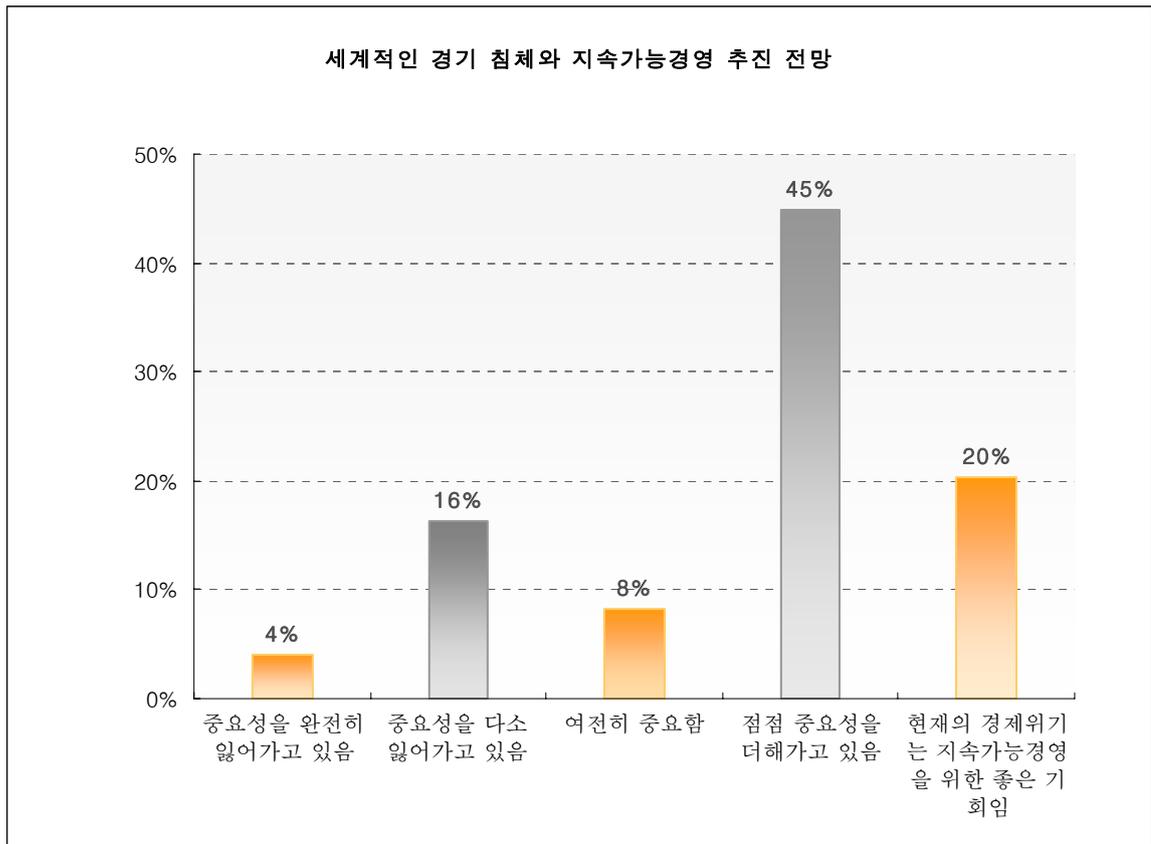
## 2.7 경제위기와 지속가능경영

과거에는 “지속가능경영”이 일부 대기업들에만 국한되는 경영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기업은 결국 “순수” 재무 지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65%의 응답자가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지속가능경영이 오히려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수의 응답자만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지속가능경영이 덜 중요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65%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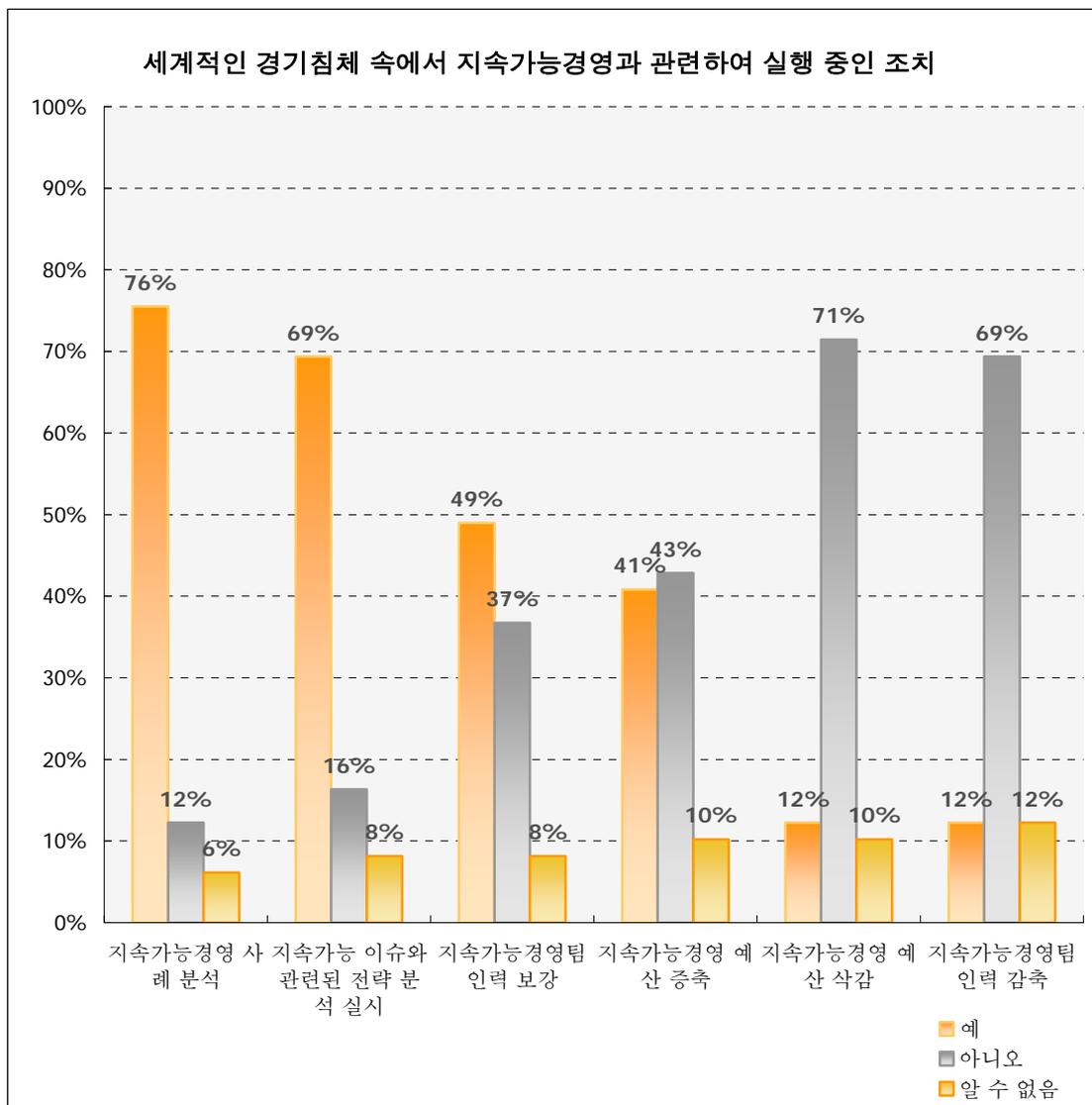
“현재의 경기침체 속에서, 귀사의 지속가능경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는 많은 기업 경영진으로 하여금 지속가능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경영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시나리오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인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관련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을 내부적으로 수행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 배치 및 예산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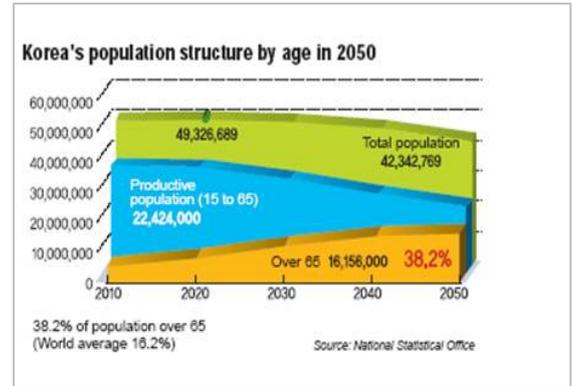
“현재의 경기침체 속에서, 귀사는 다음의 사항 중 이행한 적이 있거나 실행중인 조치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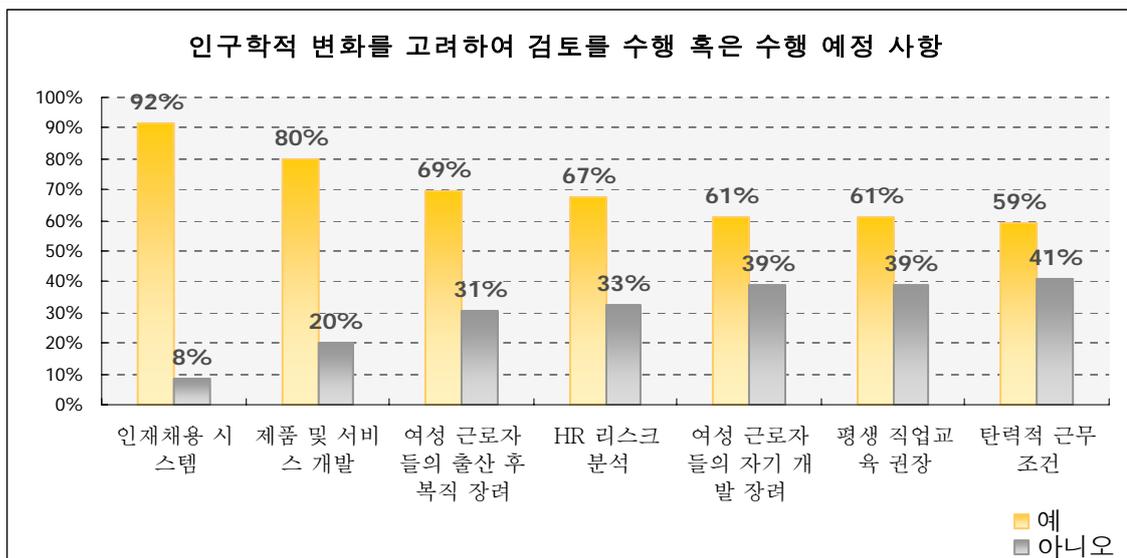
## 2.8 고령화 사회 대응

한국 사회는 지난 몇 십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인당 생산성 및 생산량, GDP 등의 성장과 더불어, 매우 짧은 기간동안 1인당 출산률이 급감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시장이면서 동시에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가까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연금제도 외에도 각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변화를 의미한다. 그 중 하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전 과정에서 기업들은 미래 도전과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귀사는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의 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것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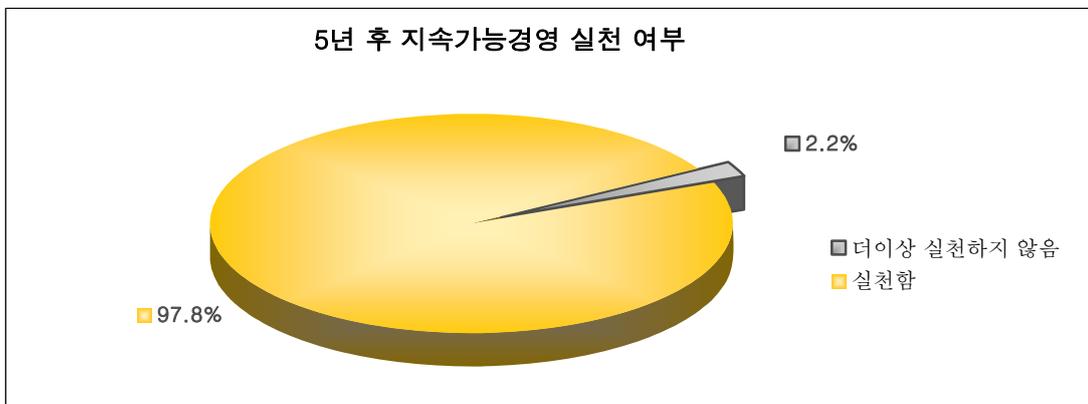
한국의 남성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여성 근로자보다 길고, 평균 근로시간도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록, 설문응답에서는 기업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문 응답결과와 현 근로 여건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 2.9 국내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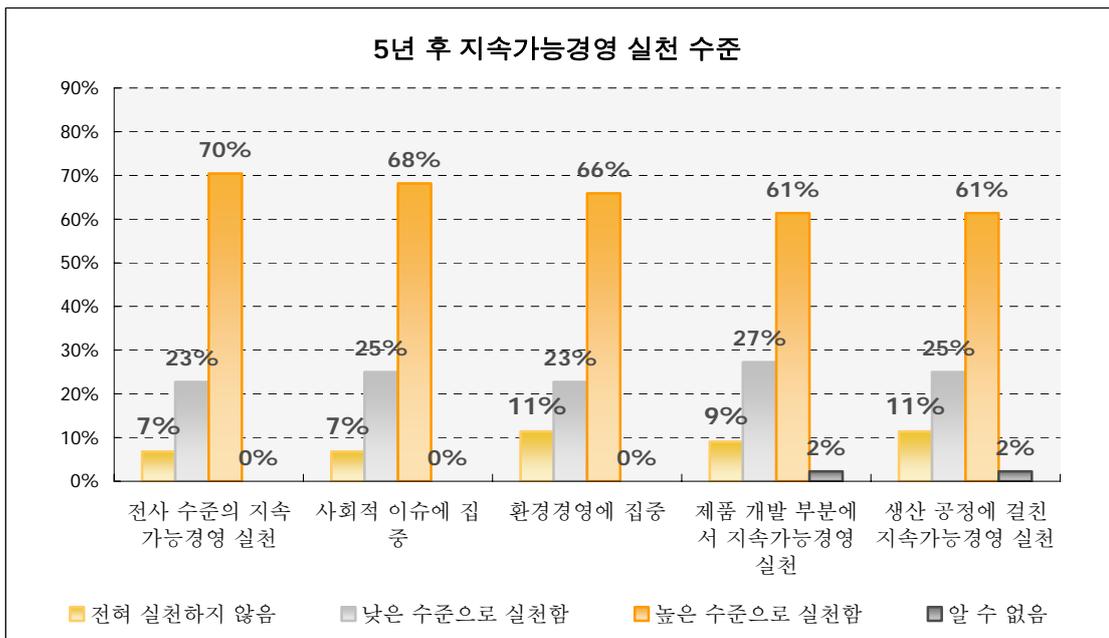
“기업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트렌드인가, 미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인가? 오래된 논쟁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본 설문조사는 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트렌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지속가능경영이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이끈다는 증거와 국내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설문 문항의 응답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98%에 이르는 응답자가 5년 후에도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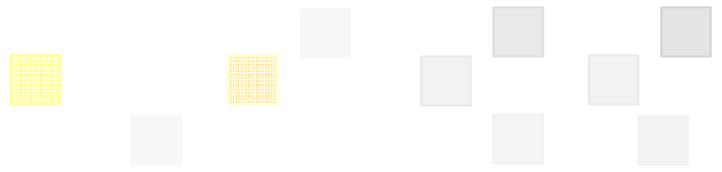
**응답자의 98%가 기업이 2014년에도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5년 후 즉, 2014년에 귀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년 후, 즉 2014년에 귀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10 결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기업 경영에서의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이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주요 경영 이슈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전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해외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기업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메가 트렌드에 보다 큰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와 “그린 경제”의 새로운 기회 요인들도 이와 같은 트렌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대다수는 이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요 경영 화두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고 경영진의 이해와 의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행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없이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단순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활동에 그칠 것이며, 기업 비전에 지속가능성 이슈가 전략적으로 통합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경영이란 특정 부서에 관련된 이슈가 아닌 전사적인 경영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최근 3년 간의 ESG 리서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합적인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국내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 3 SolAbility – ESG research evidence

### 3.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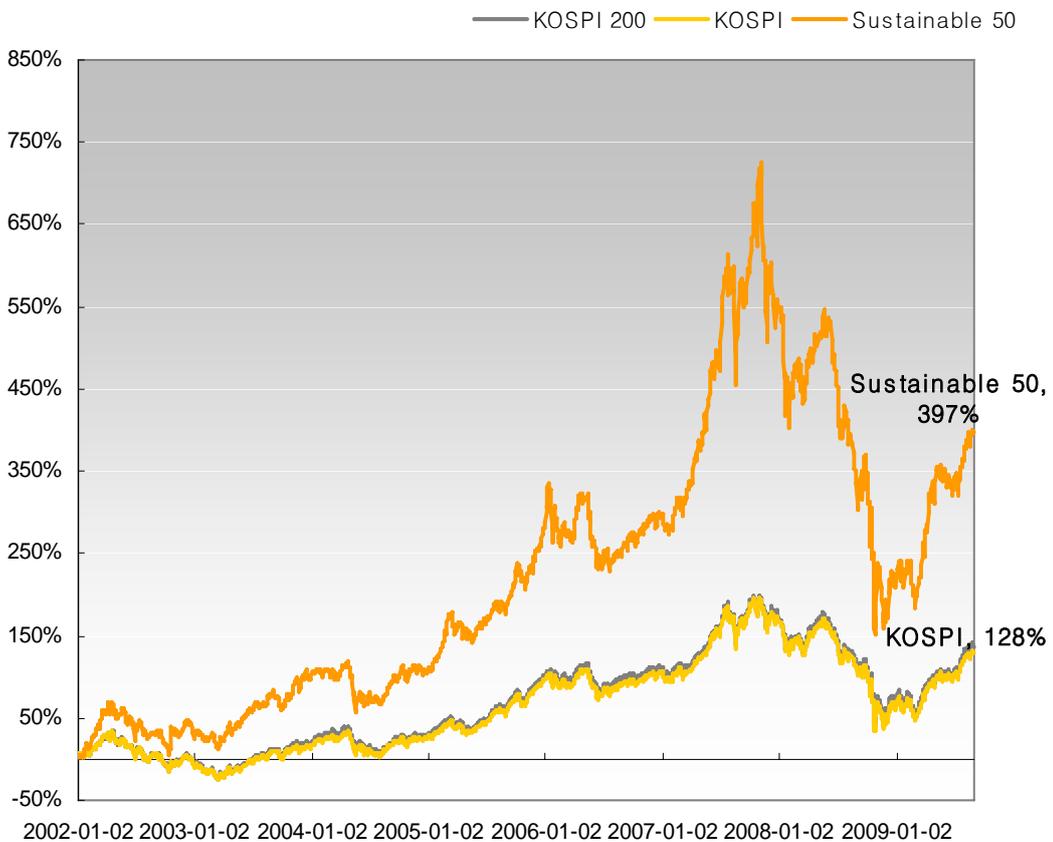
솔라빌리티는 2007년부터 국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솔라빌리티 ESGS 평가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전략을 아우르는 평가틀로, 지속가능성 메가트렌드 및 GRI G3, UN Global Compact 등의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한국적 기업 문화 및 국내 법규, 조직 특성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광범위한 일반 이슈와 산업별 특정 평가 항목을 평가 범위로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우수기업을 선별한다.

솔라빌리티 평가틀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우선 예비평가를 통해 비교적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낮은 기업은 제외한 심화 평가 대상 기업 명단을 확정하며, 이후 심화 평가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행한다. 솔라빌리티는 매년 KOSPI 및 KOSDAQ 기준 국내 350대 상장사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 3.2 국내 지속가능성 우수 기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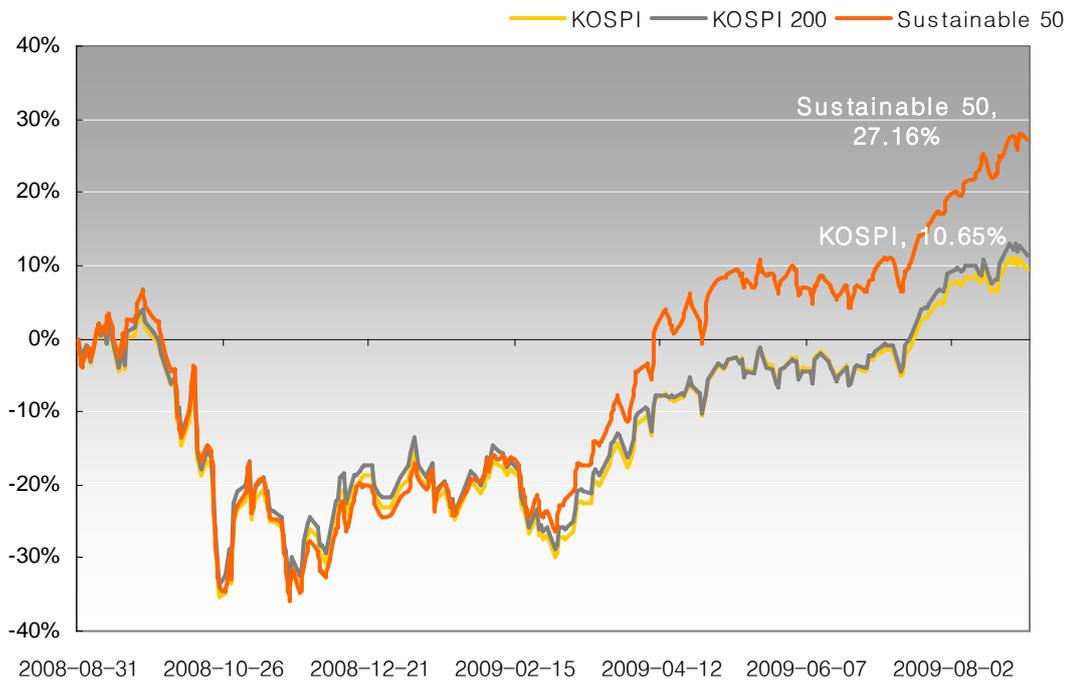
솔라빌리티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국내 벤치마킹지수 대비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2002년 이래 수익률을 분석해 본 결과,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50대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KOSPI 평균 대비 250% 더 높은 수준이었다.

The 50 most sustainable companies vs. Korean Stock Index, 2002-2009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 우수 기업들의 초과 수익률은 백트래킹(역분석) 포트폴리오 분석뿐 아니라, 1년 성과 분석표를 통해서도 평가결과상 점수가 낮은 경쟁 업체들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더 빠르고 강력한 회복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Sustainable 50, one-year performance (09/2008 - 09/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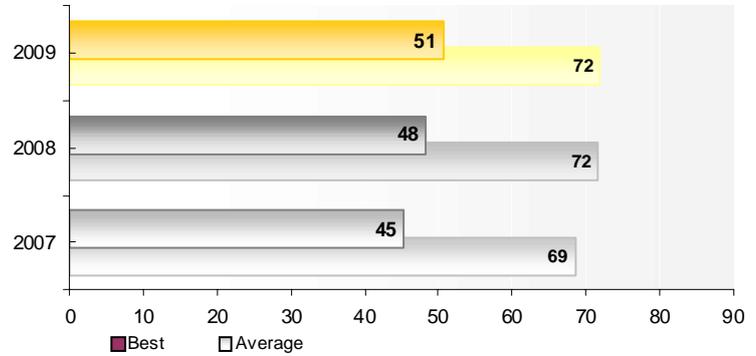
### 3.3 2007-2009년 국내기업 지속가능성 발전 성과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전반적인 솔라빌리티의 ESG 지속가능성 평가 점수도 향상되어 2007년 대비 전체 평균 점수가 13%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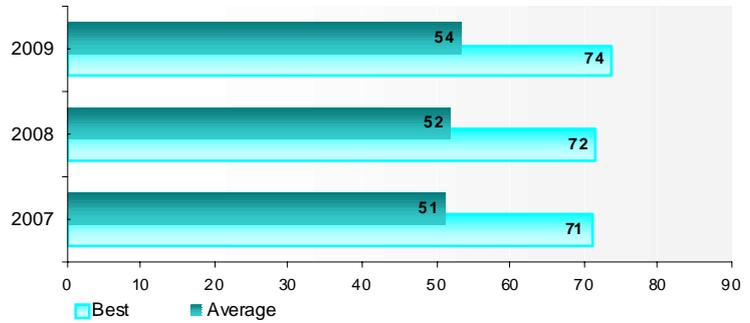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평가 대상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했음에도, 선두 기업들의 점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과가 괄목할 만한 개선점 없이 다소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문 평균 점수가 경제 및 사회 (인권 또는 각종 사회 이슈 관련) 부문보다 저조한 것은 환경 경영이 여전히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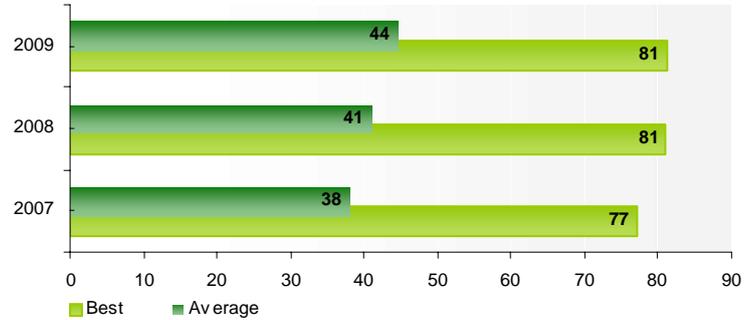
Overall Sustainability Performance 2007-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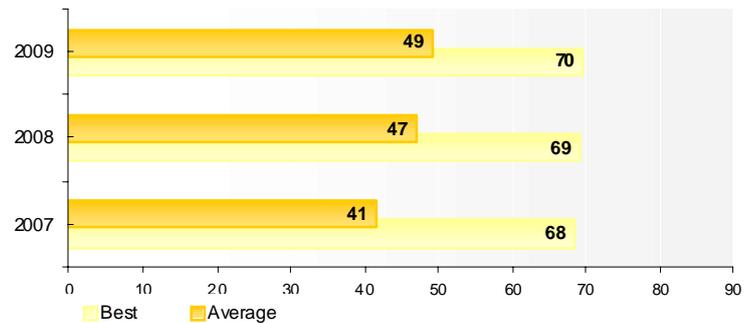
Economic Sustainability Performa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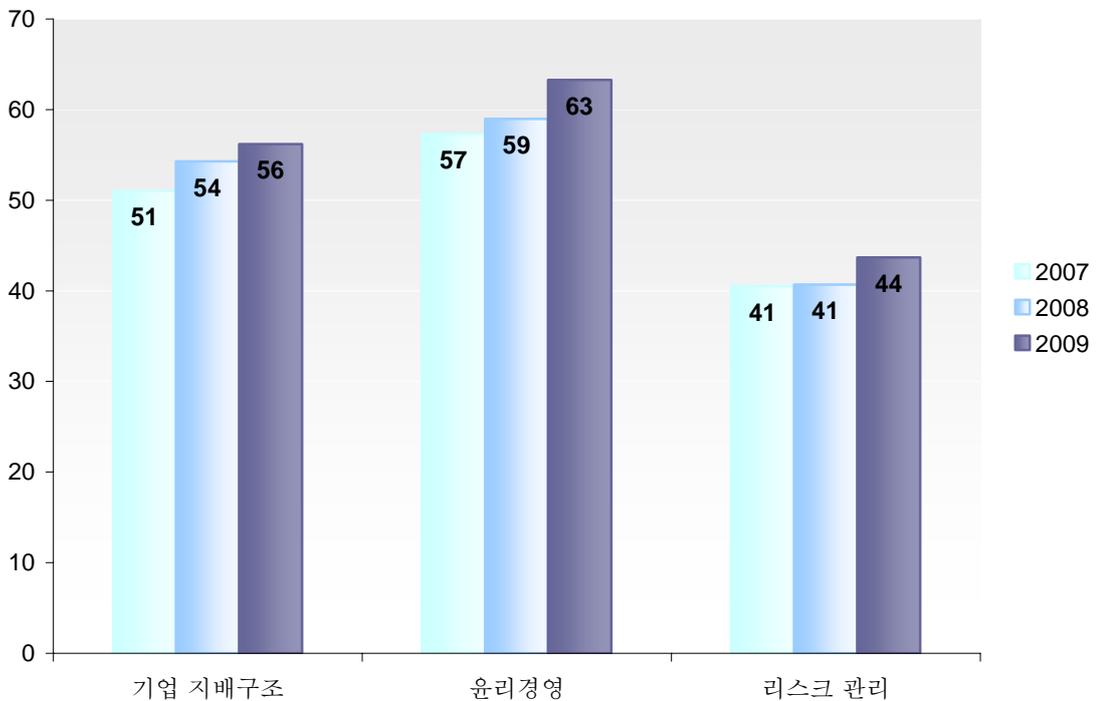


Societal Sustainability Performance



### 3.4 지속가능성 이슈의 부분적 발전 - 경제부문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은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이 전략적인 접근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윤리경영 정책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실행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기업들이 국내 법규에 따라 이사회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 견제기능 확보 등의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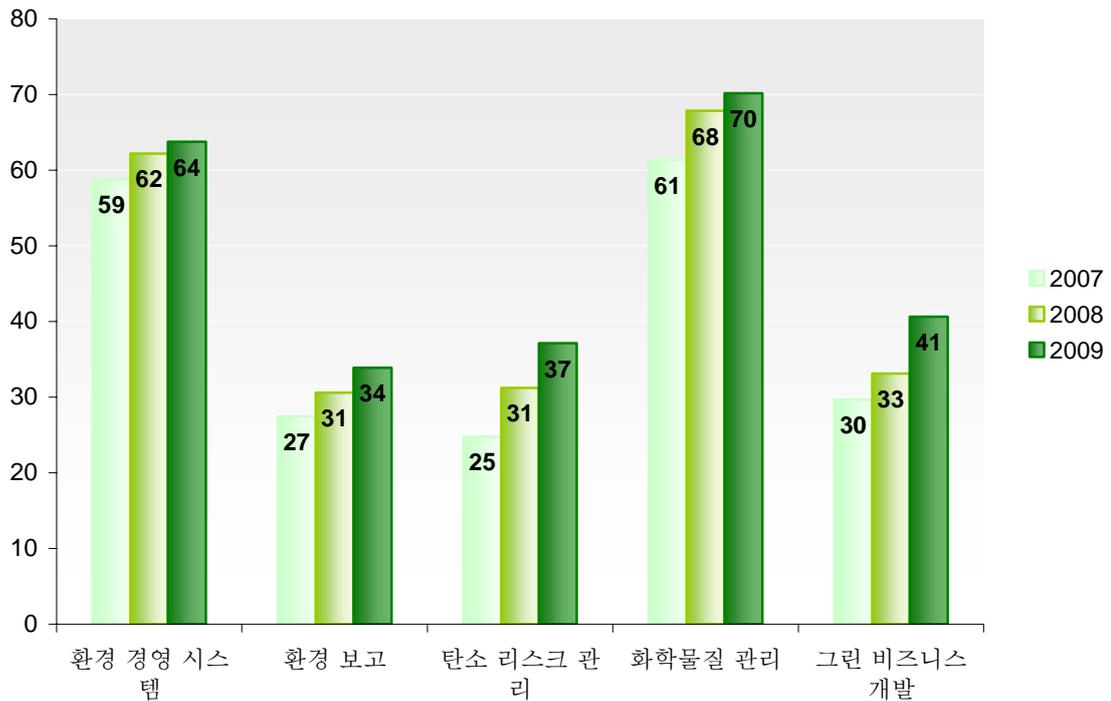


리스크 관리 부분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와 같은 재무 리스크 외에 비재무 리스크까지 포괄하는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 3.5 지속가능성 이슈의 부분적 발전 - 환경 부문

국내 기업들은 환경경영 시스템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많은 국내 기업이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의 환경 경영 시스템 운영에 관한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환경경영에 관한 정책을 여전히 갖추지 못했으며,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기본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국내 기업들은 환경경영 시스템의 전략적 운영면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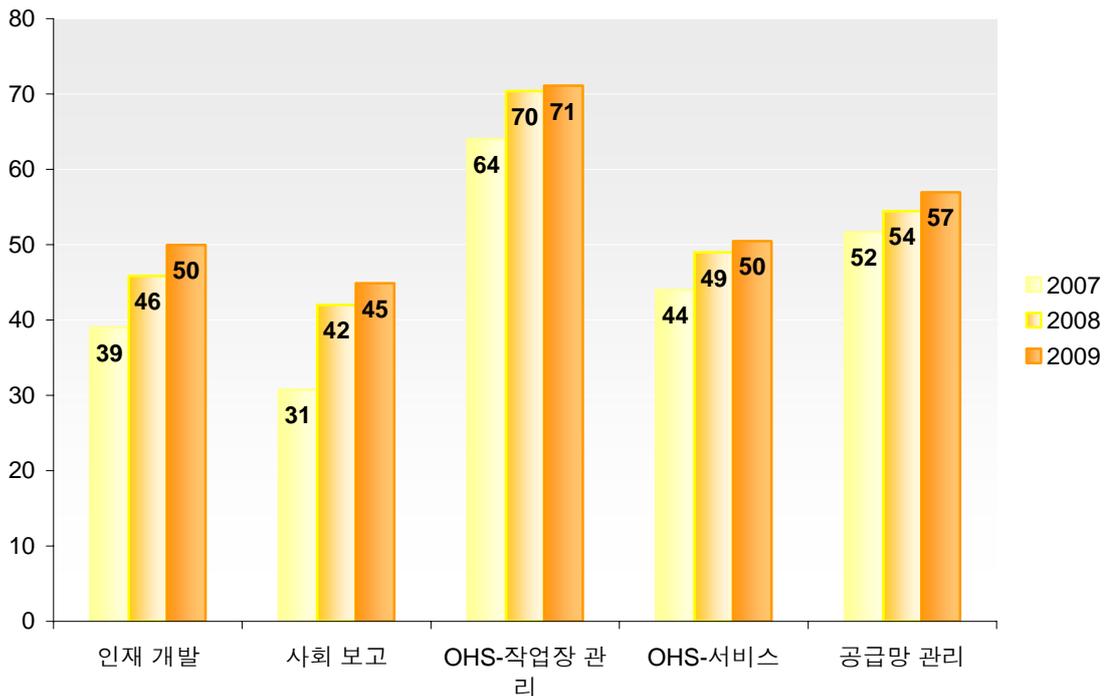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GHG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배출량 감축 프로그램과 “그린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환경분야의 성과 역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3.6 지속가능성 이슈의 부분적 발전 - 사회부문

국내 기업 문화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영 정책 수립 및 이슈 관리 체계에서 빠른 발전을 보여왔다. 사업장 안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 이슈는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특징을 보이는 반면, 새롭게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슈들은 많은 기업들에게서 눈에 띄는 수준 향상을 나타냈다.

최신 HR 교육 시스템 및 인센티브 체계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는 것은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개발 및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 이슈 보고 부분이 향상된 것은 기업의 외부 정보 보고가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에 중심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설문조사,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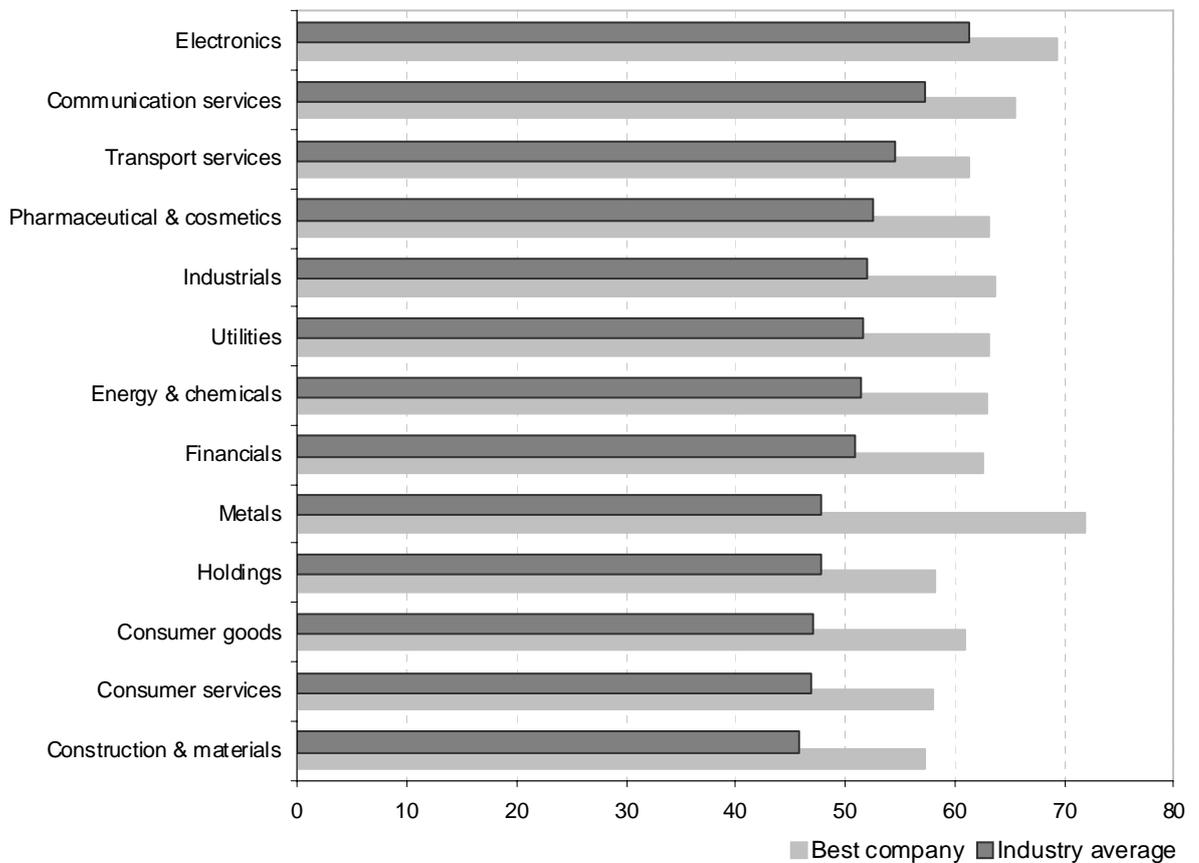
### 3.7 업종별 지속가능성 성과 분석

업종별로 지속가능성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파악되었다. 해외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대기업이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속한 기업일수록 비교적 일찍부터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왔으며, 최근에는 보고 범위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이슈로 확대해 가고 있었다.

특히 전자업종이나 운송업종에서 지속가능성 성과가 매년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업종 및 에너지집약 산업군과 같이 수출 비중이 높고 운영 리스크가 높은 업종일수록 환경 관리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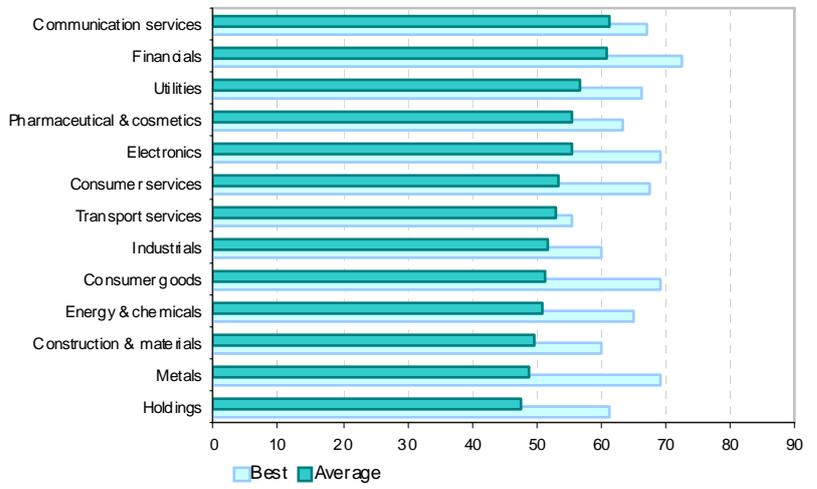
반면 금속, 서비스 및 식품 제조업체 등 내수 중심 업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지속가능성 성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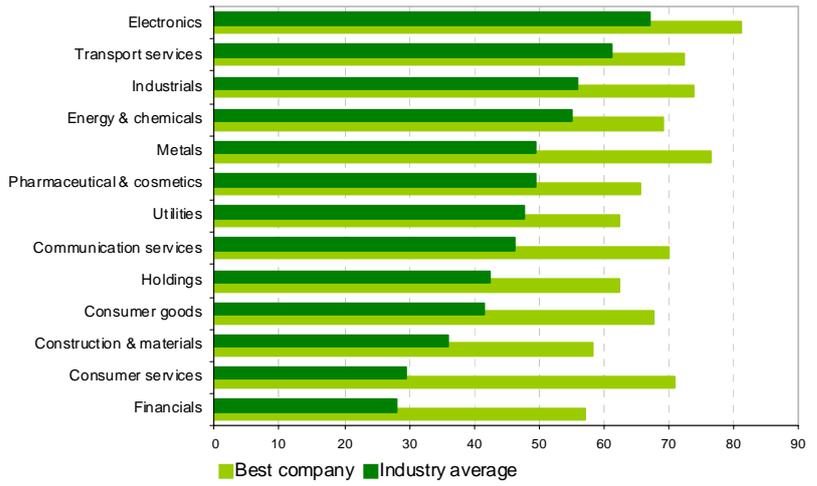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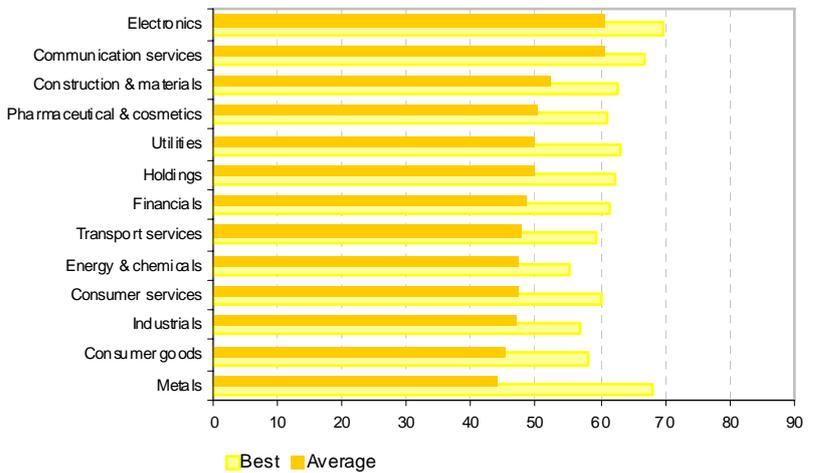
### Economic performance across industry sectors



### Environmental performance across industry sectors



### Society performance across industry sectors





**About 삼일 PwC Advisory**

- 지속가능경영, 탄소배출권 및 기후변화 대응, GRC(Governance, Risk and Compliance), Operation Effectiveness, Finance & Accounting, IT Effectiveness 분야 자문 및 컨설팅 수행
- 2010 삼일 PwC Advisory로 회사명 변경
- 2007 삼일 PwC 컨설팅으로 회사명 변경
- 1986년 설립

**About SolAbility**

-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 및 수준향상 등 통합 컨설팅,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ESG 리서치, 온실가스 인벤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컨설팅
- 2005년 DJSI 전문평가위원에 의해 스위스, 한국 합작회사로 설립

**보고서 관련 연락처**

**삼일 PwC Advisory**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LS 용산타워 6층  
 Tel : 02-709-0353  
 e-mail : [auskim@samil.com](mailto:auskim@samil.com)  
[www.samil.com](http://www.samil.com)

**SolAbility**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6 메리트원 802호  
 Tel: 031-811-2678  
 e-mail: [contact@solability.com](mailto:contact@solability.com)  
[www.solability.com](http://www.solability.com)